

# 근로 청년 자립지원 강화

### 익산시,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3개 사업 참여자 모집 저소득층 청년 목돈 마련·안정적인 미래 준비 도움

익산시가 저소득층 근로 청년들의 자립형성과 자립기반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한다. 근로 청년 자립기반 지원 정책이 안착되면 지역 저소득층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익산시는 6월 저소득층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희망키움통장(I)'과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3개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 I의 경우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4인 가구 기준 113만9,802원) 이상인 가구 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오는 17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또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소액이더라도 근로·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매월 저축할 금액이 없어도 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면 근로·사업소득에 비례해 적립 가능하며 희망하는 청년들은 오는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237만4,587원)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가구의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희망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추가해 자립할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 근로·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매월 10만원씩 저축했을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추가해(1:3 매칭 지원) 3년 후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여 한다.

만기(3년 가입) 시에는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 지급해지 기준을 충족하고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확인 조사를 통해 최종가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익산시는 올해 '희망키움통장 I'과 '청년희망키움통장'은 10회(2월~11월), '청년저축계좌'는 2회(4월, 7월)에 걸쳐 희망자를 모집하며 관련 사항은 익산시 희망키움통장담당자(☎859-5397)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 익산시,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가족안심숙소' 마련

익산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의 가족들을 위한 '가족안심숙소'를 마련한다.

시는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14일 동안의 자가격리 의무화되면서 관내 호텔 및 유숙호텔과 연계해 '가족안심숙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외입국자가 14일간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가족들은 익산시가 임시로 마련한 '가족안심숙소'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며 자가격리 기간 동안 가족 간 2차 감염을 완벽히 예방할 수 있다. 가족안심숙소에 참여하는 웨스턴라이프호텔과 익산유숙호텔은 코로나19로 숙박 예약률이 평소보다 급감하였으나 안심숙소운영으로 지역 사회의 코로나19위기 극복에 일조함과 동시에 신규 숙박객 유치도 가능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숙소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입국자의 자가격리통지서



익산시가 마련한 해외 입국자의 가족들을 위한 '가족안심숙소'.

서 및 본인(가족)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행정지원과(사전문의 859-5175, 859-5179)에 신청하면 공시가격 기준 50%할인된 금액으로 숙박할 수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익산시 '무관용원칙' 적용

익산시가 해외입국자들의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며 시민들에게 자가격리 의무를 반드시 지켜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6일 시에 따르면 19일부터 유럽, 미국, 아시아 등 순차적으로 확대하며 해외 입국자 전체 233명에 대해 코로나19검사를 실시했고 지난 3월 미국에서 입국한 1명의 양성 확인 후 4월 5일 자정 기준 모두 음성으로 146명의 입

국자가 14일간 자가격리중이다.

4월 5일부터 강화된 자가격리 의무 위반시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4월 2일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해 자가격리기간이 16일까지인 자가격리대상자가 5일 오후 3시 50분경 아파트 놀이터에 산책을 나왔다가 주민의 신고로 익산시 재난대책본부의 검역팀에 즉각 보고된 바 있다.

익산시는 경찰서와 공조하여 해당

아파트에 즉시 출동하여 자가격리대상자가 집에 있는걸 본 후, CCTV를 확인해 이탈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이들은 아파트 계단을 통해 놀이터에 내려가 오후 3시 50분부터 56분까지 6분간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고 시는 관련법에 따라 이들을 고발할 계획이다. 시는 1대1 모니터링 및 불시 현장 점검과 주민신고제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자가격리 의무 위반에 대해 무관용원칙으로 대응 할 방침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는 영농철을 맞아 야간 주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농업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천만원을 투입해 농업기계 안전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 익산시, 농기계 안전등화장치 무료지원

익산시는 영농철을 맞아 야간 주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농업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천만원을 투입해 농업기계 안전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신청자 중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고령자 우선으로 선정하며, 등화장치는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을 인정받은 제품을 선정해 농가 보유 농업기계에 무료로 장착할 계획이다.

농업기계 안전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 신청기간은 6일부터 24일까지며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산영계)로 신

청하면 된다.

익산시는 2017년부터 총 680대를 공급해서 농업기계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했으며, 올해도 200대를 무료 공급하여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경운기, 트랙터 등 도로 주행 농업기계 안전등화장치 부착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등화장치를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군산시 시민 협조 당부

군산시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시민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군산시민들의 협조 속에 1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원만하게 마쳤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정부가 오는 19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선언했다.

실제 군산의 경우 의심환자가 증가하는 것 보다 해외에서 공부하다가 돌아오거나 해외를 방문한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적극 동참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밀명중합경계장과 은파호수공원 등에 벚꽃이 만발함에 따라 꽃구경을 위해 관광객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시의회 임시회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제226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안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무너지는 경계를 살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군산시 재난기분소득 지원 근거 조례안 제정과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것으로 6일 본회의 후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7일 본회의에서 확정한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 대응 긴급예산편성 사유 발생으로 27만 군산시민 모두에게 동일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군산형 재난기분소득 지원을 위해 제1회 추경 1조3,718억3,000만원 보다 201억 원(1.5%)이 증액된 1조3,919억3,000만원으로 201억원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경구 의장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시 청년뜰, 원스톱 창업 컨설팅

### 정부사업 선정률 높이기 올인

군산시 청년뜰이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원스톱 창업컨설팅'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원스톱 창업컨설팅 지원사업'은 창업에 관한

정보와 사업계획서 작성기술이 부족한 지역 창업자에게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대비해 사업계획서 작성법과 대면평가 등 기초단계 지원을 통해 사업 선정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군산시에 거주하며, 정부 지원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1차 컨설팅에서는 사업신청서 필요한 구비서류 및 작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차 컨설팅에서는 전문가의 사업계획서 작성법, 스피치 교육, 발표평가 사전 리허설 등 1:1 맞춤 컨설팅을 지원한다.

현재 모집중인 정부의 주요 창업지원사업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

는 '예비창업패키지 특화분야 지원사업',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정부부처 통합 창업 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0' 등이다.

△예비창업패키지 특화분야 지원사업은 소셜벤처, 신재생에너지, 여성벤처 등 16개 분야의 예비창업자를 전국 단위 600명 내외로 선정, 사업화 자금(최대 1억 원),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은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아이템을 사업화할 수 있는 자금(최대 1억 원)과 아이템 실증 검증 등 특화 프로그램 지원해 기업의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전! K-스타트업 2020은 부처·지자체·민간합동 창업 경진대회로 예비창업 및 7년 이내 창업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총 상금 15억8천만 원(최고 3억 원)과 본선 진출자에 대한 금융지원, 기술개발, 판로지원 등 후속 연계지원이 이뤄진다. /군산=김정훈 기자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